

## 이 전공은 저랑 안맞는것같아요 ππ

### 도입 년 꿈이 뭐니?

꿈(DREAM) :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

비전(VISION) : 내다보이는 미래의 상황

직업(JOB) :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고 하는 일

우리는 꿈을 꾸어야 한다. 직업이 아닌 비전

하지만 현실은?? 우리가 대학에 다니는 목적 = 대부분은 취업하기 위함

### 너의전공은?

#### 1.전공과 직업

“우리나라 전공과 직업 간 미스매치율은 50.0%로 OECD 22개국 중 1위였으며, 올해 통계청 조사에서도 일자리와 전공과의 불일치율은 52.3%로 취업자의 절반 이상은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.”-이데일리

특수목적전공을 제외하면 아마 더 높은 수치

전공선택과 직업선택은 별개

그렇다면 전공은 별 의미가 없는걸까?

#### 2.성경에 나오는 전공자들

##### a.양치기소년 다윗

다윗은 특출난 신체조건이나 군사훈련을 받은게 아니라 양을 치는게 주업무인 작은소년

하지만 평생 갈고닦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잡게되고 나중엔 왕의 자리에 올라서게 됨

##### b.어부 베드로

베드로는 평생 어부로 살아왔다. 배와 그물이 그의 전부였으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부르셨음(마4:19) -사람을 낚는 어부 베드로

##### c.장막치는 바울

바울은 높은수준의 교육을 받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고발하는일을 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후로 선교사로 살게되는데 장막치는일을 하며 생계유지를 했음(텐트메이커)

이 세명의 공통점과 차이점은?

## 공통점

셋다 전문적으로 하는일이 있었다,하나님이 부르셨다 등등..

## 차이점

다윗은 양치는일이 아닌 왕이됨

-전혀 다른 부르심

베드로는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됨

-직업으로써의 어부가 아닌 비전으로써의 어부

바울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과 함께 선교사의 삶을 살았음

전공을 살릴수도 그렇지 않을수도?

그렇다면 나는 학과를 옮겨야할까 그냥 다녀야할까?

내가 이 학교 이 학과에 온건 하나님의 부르심일까 아닐까?

단정하긴 어렵다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각 사람을 특별하게 부르셨고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아시기때문!

어린나이에 형들에 의해 팔려갔지만 총리가된 요셉부터 왕자였지만 80살에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된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타이밍은 사람마다 다르다. 그렇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해야한다. 일찍 취업이 되지 않아 너무 조급해하지말자! 조급함은 우리를 속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듣게한다!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.

## 너의 비전은?

일상속에서의 비전

### 1.물고기를 잡는 어부 > 사람을 낚는 어부

영혼의 소방관 - 임하람간사

영혼의 건축가 - 이지훈간사

내가만난 이름모를 택시기사님

당신의 비전을 한단어로 정리해보자

### 2.당신의 물맷돌

1만시간의 법칙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물맷돌을 잘 갈고닦아야한다

-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기 때문

## 결론

이 전공이 여러분에게 맞을 수도 안 맞을수도 있다. 대학은 취업을 위한 직업 양성소가 아니라 우리의 꿈과 비전을 찾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곳이 되어야한다  
내가 원하는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것의 균형이 중요하다  
우리가 해야할 것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상 민감하자!  
우리는 학과에서 또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속에서 늘 배워야한다.  
꿈을꾸자!